

## 조각난 화음들의 모자이크

tvN <우리들의 블루스>가 발산하는 삶의 빛깔에 대한 소고

최윤경

### 0. 프롤로그(prologue)

<우리들의 블루스>(2022.4.9~2022.6.12)는 한국 드라마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 단일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으며, 드라마를 관통하는 서사도, 주인공도 부재하기 때문이다. 중심인물이 바뀌며 진행되는 개별 이야기들의 조합은 ‘옵니버스’라는 형식으로 소개되었는데, 이 또한 각각의 이야기가 독립적·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에 전형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가상의 ‘제주 푸룽리’에서 일어나는 얽히고설킨 인물들의 관계가 전체를 이루는 이 드라마는 블루스 특유의 ‘부름과 응답(call and respond)’으로 화음을 증폭시켜 회로애락으로 구축된 모자이크를 만들어낸다. 그 내부에서 맞닿은 소리의 조각들은 빛을 받아 수많은 빛깔을 발산하면서 시청자의 사유와 정서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킨다. 이 노

래는 한때 파열되었던 화음들이 모자이크 되어 뿔어내는 빛의 아우성, 즉 삶에 대한 찬가다.

## 1. 깨진 화음들, 마주하다

총 20부작으로 구성된 <우리들의 블루스>에는 15인의 이름을 둘에서 최대 넷으로 짝지은 제목이 매회 한 장면으로 삽입된다. 그런데 이 표제는 진행될 내용의 주요 인물에 관한 정보 제공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시청자의 예상을 비껴가 사유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첫 회를 살펴보자. 드라마의 처음은 새벽녘의 정준(김우빈)이다. 그는 주거 공간으로 개조한 버스 안에서 등대를 바라보며 양치질을 한다. 다음은 잠들어 있는 영옥(한지민)과 듣고 있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주먹밥을 만드는 은희(이정은)다. 그 주먹밥 하나는 출근길 텅 빈 도로에서 마주친 정준에게 전해지고, 이어지는 화면에는 항구에서 얼음을 나르는 호식(최영준)의 아침 일과가 그려진다. 경매장에서 어물을 떼러 다시 만난 은희와 정준. 그 뒤 카메라는 자리를 옮겨 시장을 비춘다. 여기서의 은희, 정준, 호식의 움직임은 활기찬 개장 풍경의 일부다.

영옥은 어디에 있을까? 해녀들의 이동을 담당하는 그녀는 그날도 늦어 혜자(박지아)의 꾸중을 듣고 배를 탄다. 삼촌(제주도에서 남녀 구별 없이 어르신을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들에게 멀미약을 건네며 애교를 떨지만 “바다에서 귀찮게 붙지 말라”는 혜자의 핀잔만이 돌아올 뿐이다. 신경 쓰지 말고 상군 해녀 춘희(고두심)에게 붙으라고 조언하는 막내 해녀 달(조혜정). 그 와중에 영옥은 선장인 정준에게 윙크하고 밥 먹었냐는 손짓까지 하다 근처에서 항해하고 있는 배 선장(윤병희)에게도 눈짓, 손

것으로 친밀감을 표한다. 춘희에게 “여시 같은 년”, “하는 말마다 거짓 말 같은 육지 것”을 내쫓으라는 해자. 정준은 동생 기준(백승도)에게 만약시의 자신과 영옥의 교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데, 기준은 단번에 영옥을 “혜프다”라고 반대한다. 이윽고 물에 들어갈 시간. 영옥은 휴대폰을 비닐에 싸 테왁(해녀가 물질할 때 몸을 뜨게 하는 공 모양의 기구)에 끼운다. 여태껏 말이 없던 춘희는 바닷속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영옥에게 팔을 휘저어 가라는 의사를 보인다. 어리둥절하던 영옥은 곧 다른 지점에서 전복을 캐고, 바쁜 은희는 손님과 값을 흥정하는 데 신경이 곤두서 있다. 이렇게 10여 분의 오프닝 시퀀스가 끝난 뒤 화면을 채우는 자막은 ‘한수(차승원)와 은희1’이다.

초입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한수’라는 이름은 시청자의 호기심을 일으켜 사고의 전환을 매개하는 경계선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시청자의 기억 속에 잠재된 오프닝의 이야기 중 하나는 4회 ‘영옥과 정준 1’로 생성되지만, 여기서의 처음은 선아(신민아)다. 아침부터 남편과 충돌하는 그녀는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운 우울증 환자로 묘사된다. 선아는 6회와 9회에서 동석과 짝을 이뤄 극의 중심인물이 되는데, 6회의 오프닝은 고등학생인 영주(노윤서)와 현(배현성)이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는 장면으로 시작해, 길에서 이를 목격한 은희의 염려 섞인 혼잣말을 통해 둘의 아빠가 언급되는 것으로 끝난다. 9회의 시작은 그 아버지들, 호식과 인권(박지환)이다. 과거에 의도치 않게 서로에게 상처를 줘 앙숙이 되었던 둘은 아이들의 무사(無事)를 위해 사과하고 용서함으로써 서로를 사돈으로 인정한다. 이처럼, 극의 오프닝과 중심인물이 연결되지 않는 형식의 반복은 ‘내가 중심이 되는 세계가 제각각 중심이 되는 다른 세계들과 공존하는 것임을 함의한다. 드라마가 지칭하는 ‘우리들’은 동등한 개별 세계의 집합으로서 단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주인

공이 없다.

본편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유지된다. 중심인물의 이야기는 그 인물의 중심 사건과 무관한 다중의 이야기를 포함하며, 1회 오프닝의 일부가 4회 ‘영옥과 정준1’로 생성된 것처럼 이후에 생성될 이야기가 잠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잠재되었던 것이 이번 편에서 생성되기도 한다. 4회를 이어서 보자면, 이는 연애를 시작하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다. 하지만 1회 오프닝에서 제기되었던 영옥에 대한 해녀들의 불만이 행동으로 분출되는가 하면, 영주와 현, 호식과 인권의 이야기가 파편처럼 삽입된다. 임신 테스트기를 사려다 상점에서 인권과 마주쳐 실패하는 상황, 인권이 “현은 영주의 꼬봉”이라는 학생들의 말에 분노할 때 마침 등장한 호식과 다투는 전개는 잠재된 이야기로서 잠시 잊혔다가 5회 ‘영주와 현’, 7~8회 ‘인권과 호식’, 6회와 9회의 오프닝에서 다시 떠오른다. 사실, 이 넷의 관계는 일찍이 2회 ‘한수와 은희2’에서 삽화로 다뤄진 바 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영주와 현이 술에 취한 아빠의 마중을 나가다 계단에서 입맞춤하는 장면, 차에서 휘청거리며 내리는 인권에게 욕을 듣고 맞으면서도 아빠를 부축하는 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사랑스럽게 ‘딸 내미’를 부르는 호식을 제치고 가는 영주. 각자의 부모와 자식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는 7~8회의 임신이라는 사건을 둘러싼 넷의 반응에 근거가 된다. 이처럼 개별 이야기의 면면은 상황이 종료되는 순간 잠재된 과거, 즉 실현될 미래로 전환되어 이후 시청자가 예상치 못한 시공간에서 현 시된다. 이로써 드라마는 개별 세계란 다른 세계로 끊임없이 침투하는 ‘열린 세계’임을 드러낸다.

또한, 침투하는 것을 넘어 ‘개입’으로 이야기의 국면이 전환되기도 한다. 일례로, 12~13회의 중심 내용은 어릴 적부터 의리로 뭉쳤던 ‘미란(엄정화)과 은희’의 우정이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공주와 무수리로

비교되는 둘의 관계에는 미란에 대한 은혜의 고마움, 열등감, 배신감이 복합적으로 쌓여 있다. 오랜만에 제주에서 만난 둘은 계속되는 오해로 결국 그 감춰왔던 감정이 표면화되면서 관계가 깨진다. 그리고 그 균열이 접합되는 데는 미란을 다른 시각에서 보고 가엾어하는 옥동(김혜자)의 진심 어린 말과, 오해를 야기한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인권의 전언이 있다(14회). 이것이 타인과의 일상적 대화가 우연히 관계에 영향을 끼친 경우라면, 모자시간인 ‘옥동과 동석’의 갈등에 공감하는 선아가 그에게 건네는 조언은 위로로서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18회). 옥동에 대한 동석의 미움은 부모가 자식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자살한 아버지에게 대한 선아의 원망과 중첩된다. 그에게 “왜 그랬냐고” 어머니에게 따지고 물으라는 그녀의 말은 동석이 옥동과의 목포행을 결심하게 되고 이후 그 물음을 실행함으로써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된다(19~20회). 16~17회에서는 푸름마을의 모두가 ‘춘희와 은기(기소유)’의 부름에 응답한다. 달 100개가 뜬 곳에서 기도하면 100개의 소원이 이뤄진다는 아빠의 말을 믿는 어린 은기가 그곳에서 위중한 아빠의 회복을 기도하고 싶어 하지만, 날씨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밥도 안 먹고 떼쓰는 손녀를 염려한 춘희는 어디론가 전화를 한다. 그리고 하늘과 바다가 이어진 까만 세상에 100척의 배가 발산하는 노란 빛이 달이 되어 떠오른다.

드라마의 이러한 흐름은 현실의 운동 방식을 대변한다. 이는 어딘가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나’가 어찌면 우연이라도 나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관계는 파편화된 나의 세계를 접합할 뿐 아니라 다른 세계에도 가닿게 한다는 사실이다. 마치 응답을 기다리는 부름에 목소리가 더해져 화음이 되는 블루스처럼, 형형색색의 조각들이 연결된 모자이크처럼, 드라마의 개별 이야기는 열린 상태에서 계속해서 섞이고 변화해 점점 더 커다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간다.

하지만 마지막 회가 그 증폭의 끝은 아니다. ‘우리들’에는 시청자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드라마는 끝났다. 이제 그 속에 잠재된 이야기가 화면 밖에서 생성되어 우리를 ‘우리들’에 끌어들이고 있는 현재의 이야기를 할 시간이다.

## 2. 모자이크에 빛이 내리면

19세기 말 미국 남부 미시시피의 목화밭. 그 끔찍한 노동 현장에서 흑인 노예들은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세상을 향해 소리를 내었다. 그것은 피의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누군가가 시작하면 누구라도 화답해 음을 쌓아 하나가 되는, 절망에 저항하는 노래였다. 노회경 작가는 “블루스가 우리의 트로트 같기도 하고, 특히 아픈 사람들이 아프지 않으려고 부른 음악이라는 게 좋았다”<sup>1</sup>라고 한다. 블루스는 소리로써 서로를 보듬는 음악이다. 마찬가지로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에 의하면, 색은 빛의 밝음과 어둠이 만나는 경계에서 발생한다. 그리하여 모자이크가 빛을 받으면 조각 본연의 색이 드러나는데, 동시에 인접한 색과 대비되어 시각적으로 변색된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색의 명암과 채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색과 색이 포옹해 만들어낸 그 빛깔은 다채로운 음이 함께 피어나는 화음과 닮았다.

드라마에는 색과 음만큼 다양한 인간 군상이 등장한다. 딸의 유학 자금을 대느라 등골이 휘는 한수. 가족들 부양에 이미 등골이 빠진 은

1 “툼배우 총출동한 노회경 신작 ‘우리들의 블루스’…… 연기 보는 재미있을 것”, 《마이 데일리》, 2022.4.7.

희.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나 '시선폭력'과 혐오에 노출된 영희. 그녀의 유일한 보호자이기에 물질할 때조차 휴대폰을 테왁에 끼워두는 동생 영옥. 원치 않은 임신으로 기로에 선 영주와 현. 자식을 위해 고된 노동을 불사하며 살았는데, 자식에겐 그저 떠나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린 호식과 인권. 어릴 적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동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이혼당하고 자살을 시도한 선아. 세 번 이혼했다는 이유로 가족의 수치가 된 미란. 바다에게 남편과 딸을 뺏긴 후 동석과 살기 위해 남편 친구의 첩이 되어 온갖 고초와 수모를 겪은 옥동. 자식 넷 중 셋까지 잃은 해에 남편까지 병사해, 자신이 혼자 키워가정을 이룬 만수만이 삶의 행복인 춘희. 아빠의 투병으로 할머니에게 맡겨진 은기. 이렇듯, '우리들'의 이야기는 애처롭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재현이기도 하다. 떠올려 보시기를. 매 끼니를 대충 때우는 기러기 아빠, 가족에게 헌신하느라 어느 것 하나 누려보지 못한 어떤 이의 삶,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 이를 함께 겪어야 하는 보호자의 노고, 미성년이라면 더욱 가혹한 혼전 임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부모 자식 간의 불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의 비극, 사업에 실패해 자살한 가장, 우울증을 앓는 주변인, 이혼에 대한 편견, 예상치 못한 가족의 죽음과 뒤따른 가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 조부모와 살 수밖에 없는 아이의 불행 등. 어떠한가, 어디선가 들어봤음직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처럼 드라마는 기억에 잠재되어 있던 나와 내 주변의 이야기를 상기시킨다. 우리의 이야기도 애처롭다.

특히, 드라마에서 그 감정이 더욱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실제 장애인인 장애인 역으로 출연하는 장면이다. 영희 역의 발달장애인 정은혜 님과 별이 역의 청력장애인 이소별 님의 연기는 한국 드라마에서

낮선 것이다. 그만큼 이들을 기용하는 일은 제작진에게도 도전이었을 테다. 결과적으로, 그 시도는 장애인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와 블로그의 글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시사 교양 프로그램 MBC <스트레이트><sup>2</sup>에서는 발달장애인을 구성원으로 둔 가족의 처절한 삶과 지원 정책의 문제점, 외국의 사례 등을 조명했는데, 여기서 15회 ‘영옥과 정준 그리고 영희2’ 편에서의 장면이 자료 화면으로 사용되었다. 이어서 현실에서의 정은혜 배우와 가족의 삶도 장애인 가족의 한 사례로 소개되었다. 드라마와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른 점이라면, 현실은 더 혹독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토록 잔인한 대우를 받는 사회적 약자는 누구인가. 이는 사실 상대적인 개념이다. 강자와 약자는 흔히 ‘기능’적인 측면으로 구분되는데, 화가가 본업인 정은혜 배우는 그림을 그리는 데는 강자다. 이소별 배우 또한 듣지 못하기에 보상 감각에 있어서는 강자일 테다. 그 밖에 약자는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자의 임신은 아이를 낳고 안 낳고를 떠나 안타까움을 넘어 따가운 시선을 받는 비정상으로 치부된다. 극중 영주와 현은 강제 전학의 위기에 처하는데, 이는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차별에 해당한다. 현의 항의와 학생들의 응원으로 처분은 면했지만, 결국 현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자퇴한다. 드라마의 울림은 현실을 보임으로써 시청자에게 사유를 유도해 고정관념을 깨고, 잊었던 사회적 의제를 떠올리게 하는 데 있다. 드라마는 우리 모두가 약자도, 강자도

2 MBC, “잇따르는 죽음…… 벼랑 끝에 선 ‘발달장애’”,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72회 (2022.6.12).



아닌 단지 불완전한 존재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관계로써 하나로 연결될 수 있으니 괜찮다고 위로한다.

한편, 이 같은 메시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소통이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비대면에 의해 닫힌 세계, 선택적 소통으로 소외된 세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삭제된 세계를 생각하게 한다. 물론, 세계는 열려 있다. 설사, 자의로 문을 잠근다고 해도 틈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존재로서 인지되지 못한다면 외부와 단절된 상태와 다름없다. 이들까지도 모자이크에 닿아 더 풍성한 화음을 만들어낼 확장된 세계는 가능할까. 드라마에서는 가능했다. 여기서 세계를 잇는 관계의 첫걸음은 다른 세계에 대한 '관심'이었다. '나'의 관심으로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 생각이 바뀌었고, 그래서 감정이 변했고, 그러니 행동이 달라졌다. 관계는 행동으로서의 '공감'이 실현되는 순간인 셈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잠재된 것은 실현되지 않는다.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그 가능성을 실현할 때다.

### 3. 에필로그(epilogue): 끝에서 다시 시작으로

드라마에는 하늘과 산, 바다와 육지가 한 폭에 담긴 장면이 수차례 나온다. 공중에서 조망하는 시선으로 촬영된 드넓은 풍경은 시청자에게 던져진 일종의 '시'다. 수려한 영상미로 재현된 자연은 앞의 이야기를 품고 그곳을 오가는 모든 존재를 상상하게 한다. 예컨대, 마지막 회에서 한라산 에피소드 이후에 배치된 전경에는 어망(어머니의 제주 방언)의 소원 성취를 위해 정상을 향해야 했던 동석 대신 아픈 옥동의 하산길을 동행해 준 등산객들도 있을 것만 같다. 이 시적 이미지는 암환자였던 옥동이 마지

막 아침 일과를 수행하기 직전에 나온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치러진 ‘제23회 푸룽리와 오산리의 한마음 체육대회’에서는 새로운 개별자들까지 합세한 흥겨운 정경이 펼쳐지는데, 옥동도 실상 모든 이의 기억에 잠재된 상태로 그들과 함께하는 셈이다. 모두가 시의 일부다. 드라마의 끝에서 ‘우리들’은 어깨동무하고 아우성친다. “조지자!” 그러고는 싸울 태세를 갖추고 세상의 장벽을 향해 돌진한다. 그 시작을 지켜본 우리도 손잡고 외치기를 바라본다. 이기자! 모든 불행을. 그리하여 당신의 삶에 빛과 노래가 충만한 날들이 깃들기를 기원한다.